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화폐 예산 21조 넘어 초과 세수 소상공인 지원

민주당,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2조4171억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며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 야당과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제발행을 대체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건 세계잉여금

예산안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법정 시한내 내년 예산안 통과 노력

정안이 끝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하는 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하여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끝났다. 21조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여야 간에도 30일 중에 두 당의 원내대표 만남을 통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맹 의원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라며 "시한 내 야당과 최대 합의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환식 기자

김동연 "심상정·안철수도 기득권... 단일화 쉽지 않아"

"李·尹 국가경영 능력에 회의적" 비판 대선 후 경기지사 출마설엔 선 그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후보가 29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포함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한 것과 관련 "셋이 모이더라도 단일화 논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3지대의 길은 소위 진보, 보수를 제외한 여집합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제3지대 나와있는 분들도 사실 기득권의 한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당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기득권도 깨는 게 목표인데 제3지대 후보들 보면 대선 세 번, 네 번 나온 분들이다. 이들도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이라며 "정치구도를 깨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야기해볼 만하다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린다. 기득권 정치판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면 셋이서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 당에서 제의를 받았고 지금도 제의를 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에서도 정말 깊이 성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평가로는 "(그 분들의) 국가경영 능력에 회의론을 가지고 있다" 지적했다.

먼저 윤 후보를 겨냥해 "어떤 분은 수사기 관장다 감자기 나왔고 지금의 정부에 적대적이기만 하다. 과거를 재단하고 수사만 했던 분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지 의심된다. 비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과 철학은 남의 머리를 빌릴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경영과 국가경영은 완전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막말논쟁, 각종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입장부터 제대로 밝혀야 하고 막말논쟁이나 청약통장 조차 모른다고 했을 때 품성과 의식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성인군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들이 인정하는 인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선 후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실례되는 마음은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저는 대선후보다.

과 철학은 남의 머리를 빌릴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경영과 국가경영은 완전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싶다"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격차나 산업 간의 차이로 인해 빛어지는 게 많아 경기도를 남북뿐 아니라 동서남북 4개 축으로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발전 전략과 일자리 전략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도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지역형편에 맞는 지역균형개발과 일자리를 만들어 격차를 좁히는데 역점을 뒀다"며 "후추에 종합해서 경기도 발전에 대한 몇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환식 기자

이재명 "배달특급 전국으로 확대"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배달 공공 플랫폼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 다섯 번째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을 올리면서 "모바일을 통해 우리 동네 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 대기업들이 쿠팡(주식배송) 시장에 경제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가득이나 비대면 거래로 소비패턴이 바뀌는데 15분에서 1시간

이내로 즉시배송 되는 쿠팡커머스 인해 동네 슈퍼마켓, 골목상권이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배달특급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와 편의점, 전통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날이 매출액이 늘었다"며 "대한민국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지역화폐를 결합시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더 많이 돌게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한 식당에서 열린 오전 5-18 관제자 오찬 간담회에서 유가족인 임금단 할머니의 발언을 들은 중 손을 꼭 잡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은 키우고, 골목상권 매출은 늘리고, 소비자 혜택은 더 크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환식 기자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은 사랑의 시작

기부상담 ☎ 031-220-7932 ARS 기부 ☎ 060-700-0006(1통화 2,000원)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모금·배분 기관입니다. <http://gg.chest.or.kr>

일러스트: 재능기부 김영근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여러분께서 경기공동모금회에 보내주신 성금은 절망 속에 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착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성금: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무통장 입금: 농협/43-01-092152/경기공동모금회
- 성품: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쌀, 연탄, 김치, 난방용품 등 기부

나눔으로 함께 웃는 행복한 경기